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 Focusing on the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at the disposal facility No.6 -

윤 현 석**

Yoon, Hyun-Seok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사방법

IV. 조사결과

V. 논의 및 결론

┃ 투고일자: 2023년 02월 07일 ┃ 심사일자: 2023년 02월 22일 ┃ 게재확정: 2023년 02월 25일

* 본 연구결과는 2022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학박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년범죄, 재범률, 소년보호처분,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I. 서론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범죄자 1,359,952명 중 소년범죄자는 54,017명(3.97%)이며,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16,356명(3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범죄 재범자 가운데 3범 이상의 누범자와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범죄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누범횟수가 높은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자 재범방지에 대한 지금의 대응기제가 소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¹⁾ 그리고 2021년 기준 1년 이내 동종범죄로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죄자 21,337명(39.5%) 중에서 10,208명(18.9%)이 전회처분에서 보호처분을 경험했으며, 전체 소년범죄자 중 13,977명(25.9%)이 보호처분 1회 이상 경험하였고, 3회 이상 보호처분을 경험한 소년범죄자도 7,464명(13.8)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결과는 소년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정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아울러 보호소년(2021년 기준 3,978명)의 행위원인은 호기심이 전체의 40.2%(1,60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발적 행동 39.2%(1,559명), 생활비 마련 6.4%(256명), 유희(136명)과 유희비 마련(135명)이 각각 3.4% 순으로 나타났다.³⁾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상 충동성과 모험심의 특징이 성인범죄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⁴⁾ 이에 따라 대상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형사사법기관은 지역사회 처우와 시설내 처우 사이의 중간단계 처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수용 처우제도인 6호처분을 운영하고 있다. 6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보호할

1) 최정원,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연구보고, 18-R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pp.5-6.

2)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2022, pp.676-683.

3) 사법연감, 2021 소년보호, 법원행정처, 2022, p.1180.

4) 송영지·김수영·김진현,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4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p.58.

필요가 있는 소년을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이하 6호처분 시설)에 일정기간 감호위탁하는 제도이다.⁵⁾ 6호처분은 대상소년을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수탁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보호수용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비행을 뉘우치게 함과 동시에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나아가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⁶⁾ 이러한 6호처분은 보호소년의 교정을 위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어 왔으나 처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⁷⁾ 특히 6호처분 시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도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재범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⁸⁾ 다수의 재범 연구들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소년들의 재범율은 약 60%-80%에 이른다고 보고한다.⁹⁾ 하지만 비행청소년에게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 10% 정도 재범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되

5) 정순형·윤현석, “6호처분 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p.4114.

6) 이승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진단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pp.17-18.

7) <표 1> 법원의 6호처분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호처분 전체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6호처분 전체	1,101(4.6)	1,029(4.2)	1,266(5.2)	1,497(6.2)	1,614(6.3)
6호(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	5(0.0)	7(0.0)	5(0.0)	5(0.0)	4(0.0)
4호(단기보호관찰) + 6호	33(0.1)	41(0.2)	32(0.1)	52(0.1)	102(0.4)
5호(장기보호관찰) + 6호	1,063(4.5)	981(4.0)	1,229(5.0)	1,440(4.1)	1,508(5.9)

출처: 사법연감, 2017-2021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8) 장안식,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아시아 교정포럼, 2016, p. 179. pp.177-209.

9) D. P. Farrington,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key finding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36, 1995, pp. 929-964; J. M. Jensen & M. O. Howard, “Youth Crime, public policy, and practice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recent trends and needed reforms”, *Social Work*, vol.43, 1999, pp.324-334.

고 있다.¹⁰⁾ 대상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 콘텐츠의 다각화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프라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6호처분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소년을 적절히 선별하여 교육하고 있는지, 실제 재비행 예방과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6호처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범죄소년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재범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호처분의 현황과 과제, 관련 법령의 개선,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비행 단계별·유형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비행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6호처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사법에서 보호처분

소년보호이념을 표방하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마련하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우범사건과 촉법사건은 통고나 송치를 거쳐 소년심판의 대상이 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소년의 범죄 역시 검사 또는 형사법원이 형사처분 보다는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

10) 송영지·김수영·김진현, 앞의 논문, pp.49-74.

50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¹¹⁾.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근거 및 제한 원리로서의 책임주의 내지 비례의 원칙 등과의 관계 설정이 요구되고 소년보호절차에서 적정절차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¹²⁾ 또한 단순한 충동과 우발성이 강하고 소년들의 범인성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년심판은 소년이 범한 비행 그 자체보다는 소년의 비행을 유발한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고려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¹³⁾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하나로 파악하는 이상, 형벌 및 보안처분과의 차이점에 천착하여 그 특수성을 강조하고 이들 제재를 목적에 따라 구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제약의 강도 및 기간에 따라 그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강조된다.¹⁴⁾

2. 6호처분

6호처분은 시설내 처우이긴 하나 국가 위주의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 수용처분(8·9·10호 처분)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시설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복지적 처우이긴 하나 비행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아동복지 지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¹⁵⁾ 6호처분은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을 대체하는 처분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서 가정과는 달리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의 보호환경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는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일탈행동을 버리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¹⁶⁾ 6호처분은 국가 시설수용이 소년에게 주는 충격

11) 김혁,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48-53.

12)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p.112.

13) 서강민,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2.

14) 김혁, 위의 논문, p.53.

15) 이승현·박선영,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7-AB-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15.

16)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한국청소년학회, 2012, p.299.

과 파괴적 영향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인간적이라는 점, 국가시설수용에서 생기는 범죄학습이나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줄여 재사회화를 쉽게 하는 점, 국가시설수용에 비해 경비와 효율면에서 보다 경제적인 점, 비행소년의 처우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복지와 형사정책적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업무가중, 소년원의 과밀수용 등 국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¹⁷⁾

3. 선행연구

6호처분에 관한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들에서 비행원인의 해소 및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이 소년법 개정이후 다수의 논문에서 연구내용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에는 6호처분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타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는 실시되었지만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 및 한계점이 도출된다. 먼저 선행연구의 성과는 첫째, 소년보호처분에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공통된 사항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다. 박상열(2010)은 소년원 처우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박영규(2012)는 송치처분의 효율화를 위한 처분의 개별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효율화, 안윤숙(2015)은 6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다. 둘째, 6호처분 시설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경·정혜원·장안식(2016)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체계 도입, 천정환(2018)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원주의적 장점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주희(2007)는 소년법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송영지·김수영·김진현(2016)이 진행한 연구에서

17) 안병경,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방안”, 보호, 통권 18권, 법무부, 2006, p.234; 이승현,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p.117.

는 대안교육을 통해 비행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회복탄력성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행예방 교육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소년들의 재범방지나 비행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매우 크다.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6호처분 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종사자 43명이며¹⁸⁾, 조사대상의 특성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대상소년	성별	남	53	67.9
		여	25	32.1
	나이	13세 이하	9	11.5
		14세 이상~16세 미만	47	60.3
		16세 이상~19세 미만	18	23.1
		19세 이상	4	5.1

18) 조사대상 6호처분 시설은 나사로청소년의 집(경기), 늘사랑청소년센터(대구), 로렘청소년학교(충북), 마자렐로센터(경기),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서울), 효광원(대전) 등 7개 시설이며, 조사대상자 특성과 조사결과에는 시설명을 제외하였다.

	신분	학생(휴학 및 유예 포함)	29	37.2
		학교를 그만둔 후 직업(아르바이트)을 갖고 있음	13	16.7
		학교를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음	19	24.4
		기타	17	21.8
	현재처분 비행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31	39.7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3	3.8
		폭력범죄(폭행, 상해 등)	20	25.6
		교통범죄	8	10.3
		기타	16	20.5
	보호처분 경험	1회(이번 처음)	29	37.2
		2~3회	38	48.7
		4~5회 이상	11	14.1
	종사자	성별	남	16
여			27	62.8
나이		20-30대	14	11.6
		40-50대	20	46.5
		60대이상	1	2.3
		미상	8	18.6
담당업무		사무국장	7	16.3
		생활지도	16	37.2
		자립지원	6	14.0
		임상심리사	6	14.0
		교사	2	4.7
		기타	6	14.0
근무기간		3년 이하	19	44.2
		5년 이하	5	11.6
		7년 이하	5	11.6
		10년 이하	3	7.0
		20년 이하	5	11.6
	20년 초과	6	14.0	

2. 조사도구

6호처분 시설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보완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에서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대상소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별 도움정도(직업훈련, 교과 및 학습 교육, 심리치료, 상담(개인, 집단, 부모, 가족 등), 스포츠 등 문화체험 활동, 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의견(진학도움 정도, 학습이해 정도, 교육기간, 취업도움 등) 등	26
종사자	프로그램별 도움정도(직업훈련, 교과 및 학습교육, 심리치료, 상담(개인, 집단, 부모, 가족 등), 스포츠 등 문화체험 활동, 인성교육, 비행 예방교육 등), 중요 프로그램 등	21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6호처분 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연구진행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전 본 연구에 대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획득한 후 대상소년과 종사자에게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 수거는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상소년은 최종 8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7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종사자는 43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변인의 내용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1. 대상소년의 교육프로그램 결과분석

(1) 교육프로그램별 도움정도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별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아래 <표 4> 와 같이 11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다’ 등 6개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는 3.59점에서 4.09점의 분포로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교육프로그램 중 문화/체험활동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집단상담 4.01점, 직업/진로/취업교육 3.99점, 기초학습/검정고시 3.90점, 부모교육/부모상담 3.87점, 건강관리/생활지도 3.86점, 비행예방교육 3.85점, 체육활동 3.82점, 심리치료 3.78점, 인성교육 3.72점, 종교활동이 3.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 높은 점수로 나타나 시설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입소기간이 대부분 6개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진로 교육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비행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로 나왔는데 형식적인 집단교육으로 진행되는 않는지, 대상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표 4> 프로그램별 도움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다	평균
기초학습/검정고시	5(6.4)	7(9.0)	11(14.1)	17(21.8)	33(42.3)	5(6.4)	3.90
직업/진로/취업	3(3.8)	5(6.4)	14(17.9)	21(26.9)	32(41.0)	3(3.8)	3.99
개인/집단상담	2(2.6)	4(5.1)	17(21.8)	22(28.2)	32(41.0)	1(1.3)	4.01
부모교육/부모상담	4(5.1)	5(6.4)	17(21.8)	21(26.9)	29(37.2)	2(2.6)	3.87
심리치료	5(6.4)	6(7.7)	15(19.2)	27(34.6)	25(32.1)	0(0.0)	3.78
체육활동	4(5.1)	5(6.4)	19(24.4)	21(26.9)	27(34.6)	2(2.6)	3.82

문화/체험활동	2(2.6)	4(5.1)	15(19.2)	18(23.1)	36(46.2)	3(3.8)	4.09
종교활동	7(9.0)	7(9.0)	14(17.9)	27(34.6)	19(24.4)	4(5.1)	3.59
인성교육	7(9.0)	6(7.7)	12(15.4)	30(38.5)	23(29.5)	0(0.0)	3.72
비행예방교육	4(5.1)	5(6.4)	16(20.5)	27(34.6)	26(33.3)	0(0.0)	3.85
건강관리/생활지도	4(5.1)	5(5.1)	19(24.4)	21(26.9)	28(35.9)	2(2.6)	3.86

(2) 교육프로그램별 의견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문화/체험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집단상담, 직업/진로교육, 기초학습/검정고시 등 교육프로그램이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말 필요한 상담이다 3.86점, 비행예방에 도움이 된다 3.78점 순으로 나타나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정말 필요한 상담이다	3(3.9)	7(9.1)	16(20.8)	23(29.9)	28(36.4)	3.86
상담시간이 짧다	6(7.8)	10(13.0)	21(27.3)	24(31.2)	16(20.8)	3.44
감정(분노)조절에 도움된다	4(5.2)	6(7.8)	20(26.0)	26(33.8)	21(27.3)	3.70
나를 돌아보는데 도움된다	2(2.6)	5(6.5)	18(23.4)	27(35.1)	25(32.5)	3.88
비행예방(재비행)에 도움된다	3(3.9)	5(6.7)	21(27.3)	25(32.5)	23(29.9)	3.78

다음으로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대체로 직업/진로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 교육기간 등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프로그램은 입소기간을 고려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직업/진로 교육프로그램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교육프로그램 부족하다	20(26.7)	21(28.0)	18(24.0)	10(13.3)	6(8.0)	2.48
실습장비 부족(미흡)하다	24(32.0)	22(29.3)	14(18.7)	12(16.0)	3(4.0)	2.31
적성에 안맞는다	19(25.3)	20(26.7)	28(37.3)	5(6.7)	3(4.0)	2.37
교육기간 짧다	23(30.7)	19(25.3)	24(32.0)	6(8.0)	3(4.0)	2.29
취업에 도움이 된다	5(6.7)	5(6.7)	26(34.7)	24(32.0)	15(20.0)	3.52

마지막으로 기초학습/검정고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기초학습이나 검정고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학습내용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여 대상소년에 맞는 수준별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 기초학습/검정고시 프로그램 의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학습내용이 어렵다	21(28.8)	20(27.4)	13(17.8)	11(15.1)	8(11.0)	2.52
선생님이 부족하다	32(43.8)	23(31.5)	10(13.7)	5(6.8)	3(4.1)	1.96
교재가 부족(미흡)하다	30(41.1)	25(34.2)	13(17.8)	4(5.5)	1(1.4)	1.92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된다	3(4.1)	6(8.2)	15(20.5)	25(34.2)	24(32.9)	3.84
진학에 도움된다	3(4.1)	4(5.5)	14(19.2)	26(35.6)	29(39.6)	3.93

2.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결과분석

(1) 교육프로그램별 도움정도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소년들에게 얼마나 도

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표 8> 과 같이 11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실시하지 않는다’ 등 6개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는 3.84점에서 4.69점의 분포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1개 교육프로그램 중 건강관리/생활지도가 4.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집단상담 4.53점, 기초학습/검정고시 4.47점, 문화/체험활동 4.37점, 직업/진로/취업교육 4.30점, 부모교육/부모상담 4.14점, 심리치료 4.12점, 체육활동 4.09점, 비행예방교육 3.98점, 인성교육 3.95점, 종교활동 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활동에 해당하는 인성교육과 비행예방교육 등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교육방식이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표 8> 프로그램별 도움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실시하지 않는다	평균
기초학습/검정고시	-	1(2.3)	5(11.6)	10(23.3)	27(62.8)	-	4.47
직업/진로/취업	-	-	8(18.6)	14(32.6)	21(48.8)	-	4.30
개인/집단상담	-	1(2.3)	3(7.0)	11(25.6)	28(65.1)	-	4.53
부모교육/부모상담	-	2(4.7)	9(20.9)	13(30.2)	19(44.2)	-	4.14
심리치료	-	1(2.3)	10(23.3)	15(34.9)	17(39.5)	-	4.12
체육활동	-	1(2.3)	11(25.6)	14(32.6)	17(39.5)	-	4.09
문화/체험활동	-	-	6(14.0)	15(34.9)	22(51.2)	-	4.37
종교활동	1(2.3)	3(7.0)	10(23.3)	11(25.6)	13(30.2)	5(11.6)	3.84
인성교육	-	2(4.7)	14(32.6)	11(25.6)	16(37.2)	-	3.95
비행예방교육	-	2(4.7)	13(30.2)	12(27.9)	16(37.2)	-	3.98
건강관리/생활지도	-	-	2(4.4)	10(22.2)	33(73.3)	-	4.69

(2)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한 교육프로그램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을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3개까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였다. 체육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기초학습/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집단상담, 부모상담 등 프로그램이 대부분 고르게 제시되었다.

특히 위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사들은 비행예방교육의 도움정도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였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상소년들에게 맞는 전문화된 비행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리치료와 상담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9>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기초학습/검정고시	18	12.1
직업/진로/취업	15	10.2
개인/집단상담	20	13.3
부모교육/부모상담	21	14.2
심리치료	23	15.5
체육활동	11	7.5
문화/체험활동	5	3.5
비행예방교육	23	15.7
건강관리/생활지도	7	5.0
퇴소후 관리	4	3.0
합계	149	1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소년들과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4.01점), 직업 및 진로교육(3.99점)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비행예방교육(3.85점), 심리치료(3.78점) 등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3.86점)으로 인식하고 직업 및 진로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3.52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기초학습이나 검정고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학습내용을 다소 어렵게(2.52점) 인식하였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관리 등 생활지도(4.69점)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대상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4.53점),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4.47점) 등 순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정서활동에 해당하는 비행예방교육(3.98점)이나 인성교육(3.95점)은 다소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비행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지만 도움이 되는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대한 각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은 소년들이 비행(범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

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한다. 또한 위탁시설에 폭력성향이나 정신질환이 심화된 소년이 수용될 수 있는바 소년들의 비행(범죄)유형이나 경력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다. 현재 상담심리를 통한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상주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탁소년의 시설 수용기간과 수용인원을 고려하면 소년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상담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 의사나 간호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MOU체결이나 소년보호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위험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이나 심리적 건강, 학습장애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받도록 한다. 셋째, 대상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6호처분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향후 아동보호치료 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단계별·유형별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중간처우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경·정혜원·장안식,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미국
의 오하이오 주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2016,
pp.177-209.
- 김 혁,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pp.1-207.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2.
- 박상열, “6호 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소년보호연
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pp.193-218.
- 박영규,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19권 제1
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p.415-446.
-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
5호, 한국청소년학회, 2012, pp.293-318
-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
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pp.97-139.
- 박호현·윤현석,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법
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pp.155-181.
- 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2022.
- 서강민,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1-122.
- 송영지·김수영·김진현,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4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pp.49-74.
- 안병경, “소년범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방안”, 보호, 통권 18권,
법무부, 2006, pp.1-369.
- 안윤숙, “보호소년(6호처분) 위탁 아동복지시설의 운영특성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16권 제4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pp.
371-403.

- 윤현석·전명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화해권고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pp.345-370.
- 이승현·박선영,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7-AB-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p.1-190.
- 이승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진단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pp.7-34.
- 이승현,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pp.95-126.
- 장안식,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16, pp.177-209.
- 전주희, “소년법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사법단계별 선도프로그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1-73.
- 정순형·윤현석, “6호처분 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 제6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pp.4113-4124.
- 천정환, “프로그램을 통해 본 6호처분의 발달방안”, 교정복지연구, 제54권,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pp.53-85.
- 최정원,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연구보고, 18-R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pp.1-397.
- D. P. Farrington,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key finding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36, 1995, pp.929-964.
- J. M. Jensen & M. O. Howard, “Youth Crime, public policy, and practice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recent trends and needed reforms”, *Social Work*, vol.43, 1999, pp.324-334.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 Focusing on the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at the disposal facility No 6 -**

Yoon, Hyun-Seok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hievements and problems through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disposal facility No. 6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8 boys subject to disposal No. 6 and 43 facility workers, an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boys evaluated the educational programs operated at the disposal facility No. 6 as generally helpful, and in the opinions of each educational program,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job and career education showed high satisfaction. Second, the opinions of workers on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disposal facility No. 6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operated at the 6th disposal facility were very helpful to the target boys, and the next important programs to be dealt with at the 6th disposal facility were basic learning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vocational/career/employment education. ,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counseling were evenly recognized.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improvement of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education on misconduct prevention, seco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unseling psychology support and treatmen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foster boys, and third,

* Professor, Dept. of police&Administr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prot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arget boys after leaving school. Reorganization of the observ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exclusively responsible for post-resettlement where job training is possible continuously were suggeste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ecause only some of the target boys and workers of the No. 6 disposal facility were selected for research. In the follow-up study, a nationwide study on juveniles and workers in child protective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o activate middle treatment, and through this,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recidivism of target juveniles.

Key Words

Juvenile crime, recidivism rate, juvenile protection disposition, disposition No. 6, education program.